

참사람 36.5°C

2022년 7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CONTENTS 목차

발행일

2022년 7월 5일 화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소식지
chamsaram.org



Cover Story

지금 청소년들에게 가장 뜨거운
화두, 다름아닌 MBTI입니다.
7월호 ‘참사람을 말하다’는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써 MBTI의
현명한 활용방안을 제안합니다.
점점 개인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MBTI가 ‘함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교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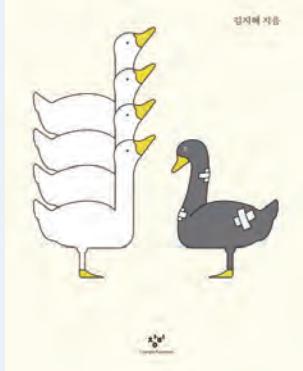
청소년들의 MBTI 활용 - 성찰, 그리고 관계맺음



06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삶을 통해 가르치는 당신의 이야기 글 _ 참사람 독자 박은우

선량한 차별주의자



08

책으로, 참사람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비행 청소년은 아니에요!
글 _ 책갈피 공모전 수상자 이보영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어떤 책?

글 _ 오윤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소설가



14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국의 지원센터 길라잡이



18

교보교육재단 소식
2022 체인지 7기
입학식 현장 스케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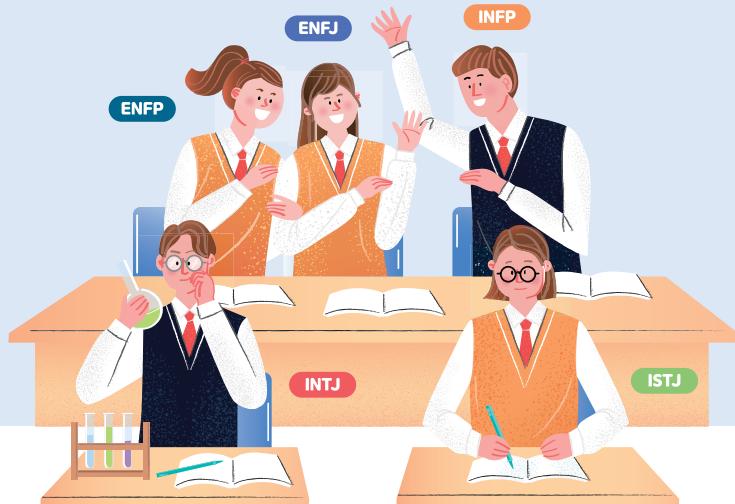
현장 속으로
우리 아이 평생경제력,
어떻게 키울까요?



16

교보교육재단 소식
2022 가족 소통 인성캠프
'숲에서 톡!톡!톡!(Talk)'
프로그램 후기

청소년들의 MBTI 활용 – 성찰, 그리고 관계맺음



청소년의 주된 관심사가 된 MBTI

청소년들에게 MBTI는 일종의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MBTI를 소개하며 우정을 쌓고 일상을 교류하는 것이 주된 취미생활이 된 것이지요. 최근 재단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체인지’ 입학식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저의 MBTI는 0000입니다’로 자신을 소개했을 정도였습니다.

SNS에서 MBTI에 대해서 검색해보더라도 ‘최고의 궁합 MBTI’, ‘사회생활 최강자 MBTI’ 등 무수한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 사회의 곳곳에 MBTI가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MBTI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MBTI를 처음 개발한 연구자는 지금처럼 활용되길 바랐을까요?

MBTI의 시작 – 진정한 나를 찾는 도구

MBTI는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캐서린 쿡 브릭스(Katharine Cook Briggs)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Isabel Briggs Myers) 모녀가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격유형 검사지입니다.

그런데 MBTI를 개발하게 된 계기에는 좀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른 시기입니다. 두 모녀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왜 서로 싸우고 괴롭히고, 죽이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끝에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다시는 발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찾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누구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으로 MBTI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도구, MBTI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 ‘나와 내 친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처럼, ‘나와 친구와의 관계’의 궁금증에서 MBTI를 접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MBTI는 ‘진정한 나를 찾고 이해하기’ 위한 검사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를 찾기 위해서 MBT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MBTI를 활용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내 자신은 ‘소중한 존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씨앗’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MBTI의 성격유형은 좋고 나쁨을 구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향을 표시하는 I의 성향의 친구는 몇몇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속에서 내 자신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BTI가 알려주려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친구나 부모님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본 모습을 찾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MBTI의 4가지 코드에서 표현하는 8개의 성격은 사실 분명하게 구분되지도 않을뿐더러 분명하게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의 성격 선호에 있어 나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나와의 대화를 해본다면 ‘나’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MBTI, 나를 넘어 친구를 배려하고 다른을 이해하기

MBTI는 나의 성격유형을 찾고 장점을 살려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TI는 나를 아는 도구이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유용한 도구입니다. 나의 성격유형을 찾고 장점을 키워가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그들만의 장점을 찾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유형이 비슷하건, 다르건 내가 그들과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MBTI를 너무 믿는 나머지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틀에 가둬 사람마다 가지는 복잡한 성격을 스테레오 타입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성격을 낙인(라벨링)화하여 싫어하는 모습만 부각하고 관계를 더욱더 나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MBTI는 경향성, 선호도를 좀 더 갖추고 있을 뿐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구분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무엇을 믿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MBTI로 ‘나와 너’를 함께 하는 공동체

MBTI 이외에도 혈액형으로 보는 사람의 성격, 손가락 길이, 얼굴형태, 눈의 모양 등등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은 결국 나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이 참된 삶인가?’하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MBTI를 만들었던 브릭스-마이어스 모녀학자가 계속 품고 있었던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괴테의 ‘지금 네가 만나는 사람과 네가 가는 곳과 네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는 말처럼,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친구’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청소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MBTI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나는 어떤 성격의 유형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성격유형은 이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다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화되어가고 있고, 이기주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사회의 속에서 MBTI를 통해서 나와 너, 우리를 이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모두를 아우르는 공동체 사회의 가능성을 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kyobo 교보교육재단

궁금한 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MBTI 외에도 자신을 성격과 인성, 진로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워크넷(www.work.go.kr)

고등학생 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대학 전공(학과) 흥미검사,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청소년 인성검사, 청소년 직업흥미검사(개정)

워크넷 → ‘직업·진로’ → ‘청소년 인성검사’에 들어가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7종의 심리검사를 할 수 있다.

이중에서 ‘청소년 인성검사’는 ‘청소년용 빅 파이브 검사’로 성격의 5가지 요소인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성(정서적 불안정성) 등의 요소를 검사해볼 수 있다.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누리집(www.cyber1388.kr)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중독/과의존, 부모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상담실 → 웹심리검사에 들어가면 5 가지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녀육육과 관련한 검사도 가능하다. 검사뿐만아니라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댓글상담 온라인 부모상담 등 다양한 상담도 가능하다.

‘커리어넷’(www.career.go.kr)

직업적성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진로개발역량검사

커리어넷 → 진로심리검사에 들어가면 6가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이중 ‘직업흥미검사(H형)’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직업 진로 검사인 ‘홀랜드 적성탐색검사’의 청소년 버전이다.

2021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삶을 통해 가르치는 당신의 이야기

글 _ 참사람 독자 박은우

여기, 우리 학교에는 십일 년째 학생들과 함께 산을 걷는 교장 선생님이 있다.

이년 반쯤 전,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옥천 군북면 추소리에 있는 작은 대안학교로 옮기기로 한 날, 그날 나는 교장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선생님의 첫인상이란, 그저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같은 인자한 웃음에, 60대 할아버지치고는 조금 큰 키. 그 정도였다. 별다른 생각이 없이 들어간 그곳에서 마주한 교장 선생님의 모습은 내 예상에서 정확히 벗나간 모습이었다.



“파르릉, 파르릉.” 우리 학교의 하루는 시끄러운 알람시계 소리와 함께 시작한다. 졸린 눈으로 매일 하는 아침 산행을 위해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과다. 새벽마다 하는 아침 산행은 모든 학생의 불만거리이기도 하다. 아침 산행에서 엿볼 수 있듯 대안학교인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의 모습과 무척 다른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도, 스스로 해야 하는 자율적 공부도 일반 학교에 다니던 나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교장 선생님이 우리와 삶을 함께하신다는 것이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하는 아침 산행도, 모든 선생님이 퇴근하시는 저녁 시간도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하신다.

인자한 웃음이라는 내 첫인상이 무색해질 정도로 교장 선생님은 엄격한 분이셨다.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호통 소리. 선생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으시다.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거짓말이나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들. 교장 선생님이 절대 넘어가지 않는 모습들이다.

그렇지만 남을 쟁기는 것도 기숙사 생활을 하며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선생님께 걸핏하면 혼이 나고는 했다. 짜릿찌릿한 호통 소리에 ‘내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하지, 내 할 것도 너무 많은데.’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선생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게는 너무 이상적인 것으로만 느껴졌다. 사랑, 남을 위한 봉사들을 강조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랬던 내 생각을 송두리째 채 흔들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교장 선생님의 삶이었다. 우리 학교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등학생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늘 아이들에게 새 물건들이 있는 것이었다. 양말, 공책, 필기구까지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들로부터 그것이 선생님의 배려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

그날부터 나는 선생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늘 뒤에서 가장 뒤처지는 아이들과 산을 함께 걸으시는 모습. 지나가며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모습. 절대 좋은 옷 한 벌 사지 않으시고 어디에 돈을 써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모습. 이 전에 그냥 지나쳤던 선생님의 모습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선생님은 묵묵히 그런 삶을 살고 계셨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것 아닌가 싶었던 그 삶의 모습을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

“얘들아, 가장 뒤처져 있는 사람과 함께 걸을 줄 아는 삶을 살자.”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다. 내가 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삶을 통해 배우고 있는 자세는 이러한 것이다. 내 삶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시선을 돌려서 남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어 내 삶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러므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내가 살며 배운 모든 공부보다 소중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학교에도 그런 교장 선생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

아직 학업이 느려 공부를 어려워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시간을 조개어 공부를 알려주는 학생들의 모습들. 가파른 산길에서 서로 손을 잡아주는 모습들.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내려는 학생들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께서는 무엇보다 삶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신 셈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말보다는 깊은 글로, 말보다는 스치는 작은 웃음으로, 또 말보다는 삶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교장 선생님은 그런 분이다. 선생님의 삶은 많은 것들을 나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또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내 삶을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인생이란, 흔히들 경주라고 한다. 삶이 멈추지 않고 뛰어야 하는 경주라고 한다면 참사람이란, 가장 먼저 경주를 끝마친 사람도, 가장 빨리 뛰어 최고기록을 내는 사람도 아니다. 참사람이란, 가장 뒤처져서 걷는 혹은 더는 걸어갈 힘도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자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는 우리 교장 선생님에게서 참사람의 모습을 본다. 늘 올곧은 자세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선생님께 제자로서, 그 삶을 통해 변화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기, 우리 학교에는 오늘도 학생들과 함께 산을 걷는 교장 선생님이 있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비행 청소년은 아니에요!

글 _ 책갈피 공모전 수상자 **이보영**

안녕. 과거의 나. '학교는 차별덩어리에요!' 라고 외치며 고등학교를 자퇴한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5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너를 떠올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 가끔은 뒤도 돌아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어하고 있을 너에게,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네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이 있어. 차별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 종교 학교라는 이유로 같은 종교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닌 차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차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피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차별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해. 얼마 전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읽으며 '철망을 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 얇은 선 하나가 사색의 비행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곤 한다. 하지만 새장에서 두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철망들이 모여 새장을 이루고 있으며 그 새장이 새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을 보았어. 이처럼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기에 너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차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너는 지금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지 않니? 발표준비를 완벽하게 해오지 않는다면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내일까지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면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하는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밤새 발표준비를 하고 숙제를 하고 있지 않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싫다는 표현은 다르다. 사장이 어떤 직원을 싫다고 할 때, 교사가 어떤 학생을 싫다고 말할 때, 이건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니며 권력관계의 변동도 아니다. 바로 권력 그 자체다.' 책을 읽으며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구절이란다.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네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 움직이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어.

혹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니?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너는 이제 비행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거야.', '자퇴생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차별받기 쉬워.' 라는 말을 듣진 않았니? 차별을 당연시 생각하는 그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고 너만의 생각을 굳혀가길 바래. 사람들은 각자 가는 길이 다르고, 걷는 속도가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마련이야. 혹시라도 누군가가 네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속도로 걷고 다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것을 비난하고 차별한다면 너의 잘못이 아닌 다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잘못이므로 그거에 대해 너무 기죽거나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은 당연한 것이니까.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던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길 바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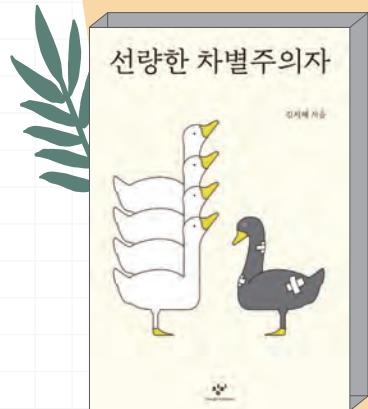


너의 의심을 의심하지 마령. '이건 차별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 '이건 차별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넌 차별적인 상황을 막막뜨릴 때마다 이런 의심을 하곤 했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그냥 넘겨버리곤 했어. 하지만 너의 그 의심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네가 예민하게 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상은 정말 평등한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이 없는지 끝없이 의심하며 시야를 확장하길 바랄게.

'결정 장애.' 네가 무언가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용하곤 하는 말이지? 난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것 또한 차별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해 반성을 많이 했단다. 앞으로는 유머, 장난, 농담이라는 것을 방패삼아 다른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에게 편지를 쓰기에 앞서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고 많은 것을 느꼈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량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내가 행한 차별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 그리고 살아오면서 당했던 차별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서 화가 나기도 했어. 그래서 앞으로 나는 무의식중에 저질렸던 차별을 깨닫고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차별이 가득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너도 앞으로 살아가며 차별을 당연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연시 여기지 말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나아갈 너의 길들이 반짝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게. 널 응원해!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어떤 책?

우리의 일상 속에 뿌리박힌 차별과 혐오를 직면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방도를 찾아보게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차별과 혐오로부터 거리가 먼 선한 사람인가요? 예능프로그램에 흑인 분장을 하고 나온 개그맨을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너무 살이 찐 것 아니냐며 면박을 주었다면, 결단을 빨리 내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결정 장애'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한가운데에 그것을 행하는 이로서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윤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 / 소설가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여자아이는 여전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가끔 쓰기도 하며,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는 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읽는 삶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또 생의 한 페이지를 책과 함께 열어갑니다.

저자는 스스로를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일상 속에 의식하지 못한 채 차별과 혐오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날카롭고 생생하게 분석합니다. 차별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프게 느껴지지만, 차별을 하는 사람은 막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민들에게 '한국 사람이 다 되었네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당신이 한국에 오래 살았어도 당신은 온전한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것이므로 이주민들에게는 모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것 역시 장애인의 삶에는 당연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역시 장애인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말을 하는 당사자는 선의를 가지고 말한 것이고, 전혀 악의 없이 한 말이므로 본인이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는 언제나 바르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전제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속에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없는지 성찰하고 재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두를 환대하는 평등과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갈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독서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2022년(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한 지난 3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위치한 ‘참사람’들의 따뜻한 온정과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또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2022년(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덥혀지는 참사람과의 인연을 소개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참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 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

공 모 명	2022년(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제출방법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수
공모대상	전 국민	문 의 처	070-8224-7706 / bgj@kbedu.or.kr
공모기간	2022년 9월 30일(금) 24:00까지 접수		
공모주제	일상에서 만난 ‘참사람’과의 따뜻한 사연		
분 량	A4 2매(글자크기 10pt 기준) 이내		
시상내역	54명 시상 / 총상금 840만원		
구분	인원	시상	
대상	1명	교보문고 도서상품권 50만원	
최우수상	3명	교보문고 도서상품권 30만원	
우수상	20명	교보문고 도서상품권 20만원	
입선	30명	교보문고 도서상품권 10만원	



자세히 알아보기

※ 제출하는 에세이(작품)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응모자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 공모전 수상이력이 없는 작품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합니다.

우리 아이 평생경제력, 어떻게 키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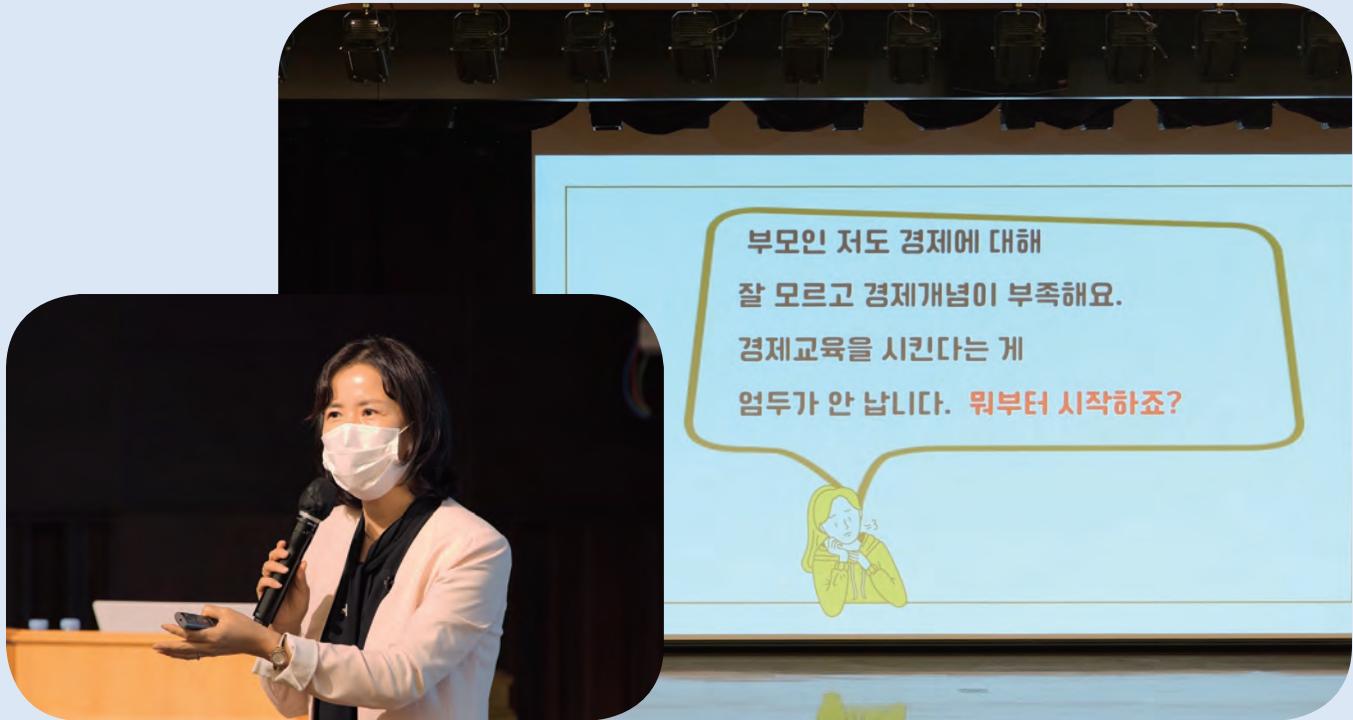


“경제는 생활 속 습관과 체험이다.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어릴 때부터 경제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네 번이나 역임한 앤LEN 그린스펀의 말입니다. 경제대통령으로도 불리는 그는 평소 조기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정·학교·사회가 합심해서 실생활 바탕의 경제교육을 일찍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경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돋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교보생명의 금융마이데이터 peach(피치)는 15년 경력의 금융교육 전문가 김영옥 강사를 모시고 ‘우리 아이 평생경제력 이렇게 가르칩니다’란 주제로 금융교육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부의 시스템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평생경제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되는 부모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에 귀 기울여주세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 시스템과 습관을 만드세요.

경제교육의 최종목적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의 작은 것부터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돈을 모아서 산다, 가족여행 시 용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한다, 뒷정리를 제대로 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생활습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가족만의 룰과 규칙을 만들고 습관을 쌓아가세요. 이 습관이 쌓이면 시스템이 되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립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 쓰는 것을 귀찮게 만드세요.

소비를 유혹하는 광고, 앱, SNS가 넘쳐납니다. 클릭 한 두 번이면 몇 만원이 흙 빠져나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돈 쓰는 앱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필요할 때 다시 깔아 쓰세요. 또한 아이와 함께 적정한 소비금액에 대해 대화 나누시고 용돈은 빠듯할 정도로 주는 게 좋습니다. 일찍 카드를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길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 부모가 먼저 공부하고 금융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이 변하고 돈도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금융생활은 급변하는 중입니다. 부모가 먼저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뉴스, 책, 동영상 등을 보며 돈의 흐름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공부를 도와주는 도구가 참 많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 꾸준히 공부한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교보생명 금융マイ데이터 Peach와 교보문고가 함께 한 김영옥 강사의 금융교육 특강 현장을 안내드렸는데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하는 일! ‘현장 속으로’가 요약한 강의 핵심과 함께, 자녀들의 평생경제력 키우기 습관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국의 지원센터 길라잡이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①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해 편견 어린 시선과 다양한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직업형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학습, 습득, 아르바이트
취업 등

무업형

특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비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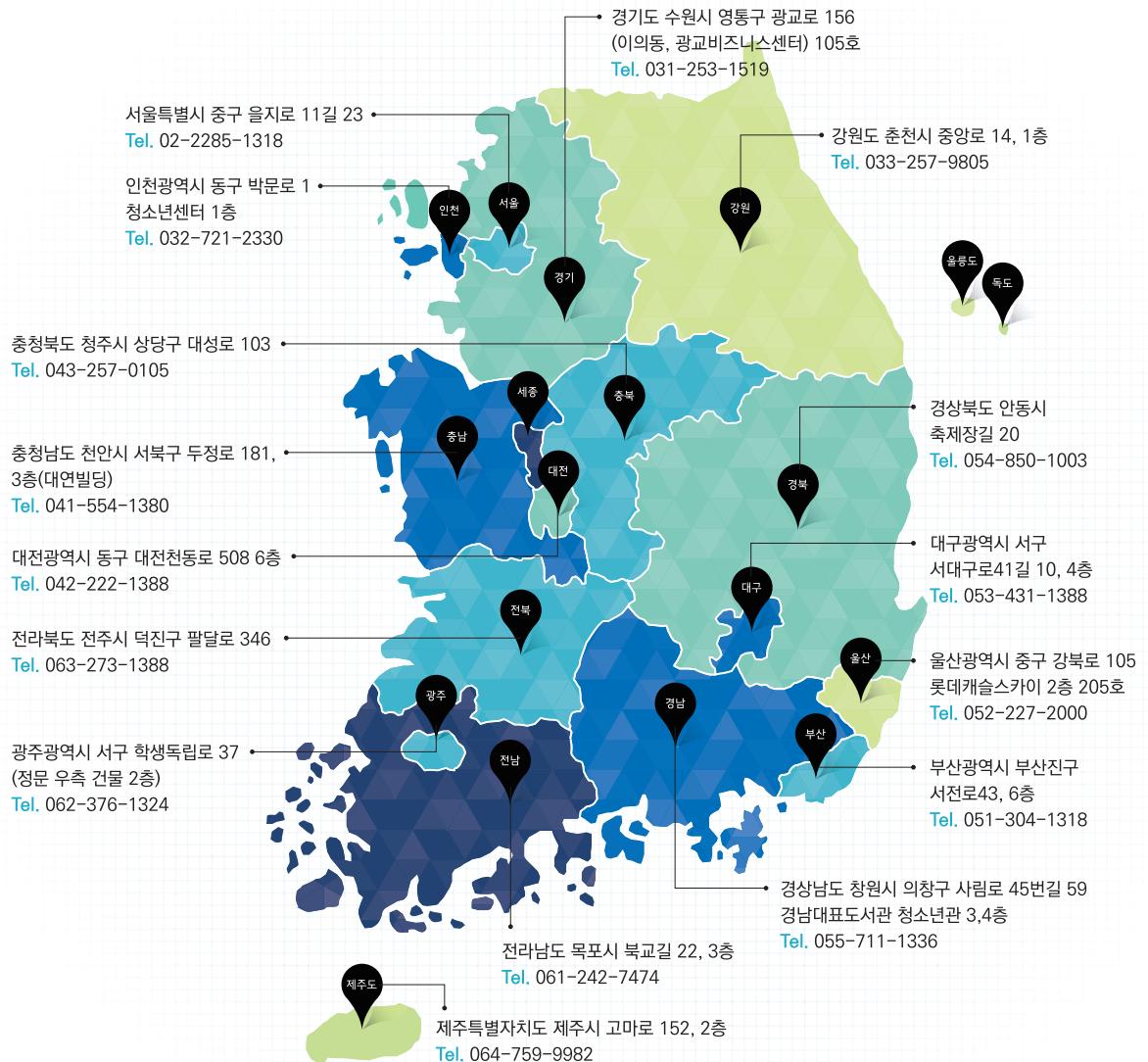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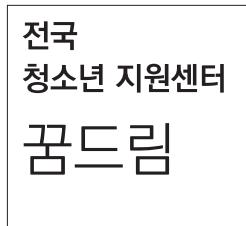
가출 또는 보호시설이나
사법기관의 감독을
받는 경우

온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번 호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에서는 학교를 자퇴할까 고민하고 있거나,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안내합니다.



전국의 꿈드림 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

-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교육지원

- 학업 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 대학 입시 지원
- 학업중단 숙려상담,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례관리
- 복교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 직업탐색,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취업훈련 연계지원
 - (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비즈쿨 등)
- 건강검진**
 - 10대 특성에 맞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건강생활 관리 지원
 - 체력 관리 지원

자립지원

-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기초 소양교육 제공
 - (경제교육, 무료 법률 자문 지원)

기타 서비스

-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2022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체 학생 수의 10%에 달하며 무려 5만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이들 모두가 기출을 했거나 단순히 공부가 싫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바로 알고, 이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건 어떨까요?

2022 가족 소통 인성캠프 ‘숲에서 톡!톡!톡!(Talk) 프로그램 후기

가족소통캠프는?

‘톡!톡!톡! 가족소통캠프’는 인성교육을 접목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한 인성과 생태감수성을 함양하는 캠프입니다.

교보교육재단은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춘천숲체원 등 전국에 있는 국립숲체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숲체험 활동과 함께 특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톡톡톡 공감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소통캠프 활동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담당자 가족이 직접 캠프에 다녀 왔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지금 소개 합니다.

숲 그리고 가족과 더 친해진 첫째 날

토요일 아침, 평소 같았으면 느긋하게 늦잠 잘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라요. 가족소통 캠프가 열리는 국립숲체원에 가기 위해서죠.

12시까지 도착하기 위해 부지런히 서두릅니다. 다행히 가족소통캠프에서 1박 2일 동안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주니 준비할 게 많지 않아요. 캠프장마다 약간씩 준비물



은 다르지만 칫솔, 수건 등 간단한 세면 도구, 긴팔, 환경을 지키기 위한 텀블러는 꼭챙겨서 갑니다.



도착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플랜트 헌터 활동을 했습니다. 플랜트 헌터는 숲 오리 엔티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미션지와 지도, 활동지를 들고 가족과 함께 협력해서 숲 속 자원을 탐험하는 활동입니다. 각 코스마다 스템프가 있는데, 미션을 클리어 할 때마다 도장을 받는 재미가 있어요!

신나게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니, 가족소통 인성 프로그램인 <톡톡톡 공감시간>이 이어집니다. 톡톡톡 공감시간은 교보교육재단이 만든 특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윷놀이를 변형한 보드게임으로 level 1, level 2로 나눠진 76개의 질문카드에 가족들 간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이에요.

“나에게 가족이란? 가족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동물이나 색깔로 말한다면?”

“올해 가족신문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텁기사로 실릴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생각과 느낌을 알게 되었어요! <톡톡톡 공감카드> 보드게임에는 질문카드와 함께 자연물을 활용한 8개 활동카드도 있었어요. 활동카드가 나오면 온 가족이 나와서 카드에 적혀있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솔방울 뚱싸기, 조약돌 탑 쌓기, 젓가락콩 옮기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즐거운 활동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숲에서 맘껏 힐링한 둘째 날

다음 날 아침, 재잘재잘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어요. 숲체원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맛난 아침식사를 먹고 힐링 가득 숲체험 활동에 참여했답니다. 피톤치드 오일도 발라보고 편백나무 향도 맡으면서 숲길 플라잉 디스크 활동, 해먹을 이용한 힐링 숲체험, 느긋느긋 리트리트 등, 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숲이라면 등산만 생각했는데, 숲에서 놀거리가 이렇게 많다니! 참 놀라웠습니다.

톡!톡!톡! 가족소통캠프는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도 넉넉하고 가족들끼리 숲을 산책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덕분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피톤치드 덕분에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숲체원에는 TV와 와이파이가 없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덕분인지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현대 문명의 오락거리와 잠시 멀어지니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어요.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운 이때, 1박 2일 간 숲이 주는 평온함과 힐링 에너지를 가득 느끼고 온 캠프였어요. 가족 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교보교육재단 숲에서 톡!톡!톡! 캠프에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2 체인지 7기 입학식 현장 스케치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이 함께 하는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체.인.지>는 청소년들이 인성 바탕의 리더십과 팔로워십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지난 6월 4일 체인지 7기 입학식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뜨거웠던 입학식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 체인지는 3개월 간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모든 비용은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이 전액 지원합니다.)



먼저 교보교육재단과 체인지 프로그램의 역사를 소개한 후, 선종학 이사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참여 청소년 모두 체인지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체인지 7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긴 ‘나침반’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청소년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사장님의 모습은 많은 선생님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깜짝 영상! 바로 작년 기수인 6기 체인지 선배님들의 축하 영상이었답니다. 7기 신입생 모두 선배들의 응원을 통해 향후 활동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체인지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의 시작!

바로 체인지 입학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0초 자기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팀 미션 프로그램 ‘리더의 식사’를 함께하며, 맛있는 음식을 팀원들과 나누어 먹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함께 식사하는 이 시간을 통해 7기 체인지 친구들은 더욱 친해질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팀 키워드 말하기, 아바타 그리기 게임 등의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서먹함은 사라지고 모두들 재잘재잘 떠들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체인지 7기 입학식 잘 보셨나요?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어려운 상황 속 이루어진 만남이었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평소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인지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청소년과 뜻 깊은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2022년 역시 체인지는 청소년들과 보다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체인지 7기 여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참사람 36.5°C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